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5p, 중고선가 지수 93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5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93p(+1p, WoW)를 기록함. 대우조선해양이 Hapag-Lloyd로부터 23,500TEU급 LNG Dual-Fuel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현대삼호중공업이 13,000EU급 전통형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2~23년까지라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은 17,000DWT급 케미컬 탱커 1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2년까지라고 보도됨. (Clarksons)

South Korean yard giants share in LNG carrier bonanza

12월 국내 조선업계로 LNG관련 선박 건조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주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Total사가 주도하는 Mozambique LNG 프로젝트용 LNG운반선 17척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동기간 대우조선해양은 Hapag-Llyod의 초대형 LNG DF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며 국내 빅3업체 모두 LNG관련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Upstream)

친환경선 청사진 나왔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30 그린십(Green Ship)-K 추진전략'으로 명명된 기본 계획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알려짐.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온실가스 70% 감축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화시스템 1,846억원 규모 지휘통제경보체계 계약

한화시스템은 지난 24일 방위사업청과 1,846억원의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체계)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방공C2A 체계는 군단 및 사단지역의 방공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항적정보유통, 경보전파, 사격통제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 지휘통제경보체계라고 알려짐. 2017년에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초도양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Ocean Network Express locks in world's largest boxship newbuildings in deal with Shoei Kisen

ONE(Ocean Network Express)가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 시리즈 선대를 일본 Shoei Kisen으로부터 장기 용선한다고 보도됨. 해당 선대의 용선기간은 15년으로 알려졌으며, 사이즈는 24,000TEU를 상회할 예정으로 알려짐. 용선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미바리조선-JMU 컨소시엄이 건조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2023~24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Jiangnan, "VLGC 시장 주도하겠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Jiangnan Shipyard는 전략적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가스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리서치선을 꾸준히 건조하겠다고 밝힘. 특히 VLGC 및 가스추진 친환경 선박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선박뉴스)